

TEE Times 티 타임즈

발행인 한순진 | 편집인 최용

20주년 특별 인터뷰_조봉희 목사

“한국교회에 킹덤 멘탈리티를 가진 리더가 계속 육성되었으면...”

20년의 발자취

안내_2022년 세미나

이스라엘 평야: 출처 unsplash

20주년 특별 인터뷰 | 조봉희목사

“한국교회에 킹덤 멘탈리티를 가진 리더가 계속 육성되었으면...”



지난 2월 10일 인터뷰

TEE 본질이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 선교적 교회로 가는 나침반

KTEE 미니스트리 20년의 역사는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렛대 역할을 해준 사람과 교회가 있었다. 우리의 사역을 대외적으로 대표해 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조봉희목사님과 지구촌교회이다. KTEE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조목사님을 특별 인터뷰로 모시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20년 전과 지금의 세상, 한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의 오늘은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이 인터뷰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만남] TEE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에게 TEE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당시 2001년으로 기억한다. 조목사님은 목동 아파트 상가의 지하 민방위 대피소에서 개척을 시작하여 2층 상가에서 지금의 선교센터를 건축하던 중이었다. 그 즈음 조목사님이 미국 여행 중 나의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그때 나는 한국의 TEE 사역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문득 제자훈련의 경험이 풍부하셨던 조목사님이 TEE의 임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재가 출판하기 전이라 그 자리에서 세퍼드라이프 1,2권을 프린트를 해서 드렸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첫 시도이며 임상이 되었다.)

그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TEE에 대해 소개를 받았을 때,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신학연장교육, 그 용어가 너무나 실감이 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교회에서 프린트물로 임상을 해보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건 제자훈련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신학교에서 옥한음 목사님께 그분의 제자훈련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늘 제 숙제가 ‘제자훈련 다음 코스가 무엇일까’였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제자훈련’은 교회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정말 좋습

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신자들을 더 큰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데, 제자훈련은 잘못하면 자기 교회 중심으로 섹트(sect)를 만들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신자들이 이사 가서 다른 교회를 가도 적응을 못하고 융화가 안되는 애매한 모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TEE를 접하는 순간, 이걸 완전히 ‘킹덤(kingdom) 신자를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리더를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놀라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좋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 초반에 교회 리더들 60-70명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한 분들이 이미 저와 함께 오랜 기간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한 분들이라, ‘교재가 답도 있고, 좀 우습다’라는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시간 교재를 공부해보더니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TEE는 사람의 (영적) 사이즈를 키워줘서, 책상 위의 신학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주는 큰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문자 그대로 ‘신학연장교육’. 이것이 제 목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KTEE와 동역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집회와 선교지를 자주 가는데, 어느 모임을 가든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TEE 세미나 참석했다’고, 그리고 ‘TEE를 통해서 교회와 선교지가 건강하게 기초 다지기를 하고 있다’고 감사해 하곤 합니다. 저희 교회가 TEE 사역을 위해 교회 공간을 제공하고, KTEE와 한목사님을 섬기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껏 한목사님께서 TEE를 통해 겨자씨 운동, 누룩 운동을 펼치셨는데, 이제 그 추수의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TEE를 접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킹덤(kingdom) 신자를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리더를 만든다!'"



[목회] 이미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구촌교회에서 TEE를 적용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TEE는 지역교회의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랄프 윈터가 캠퍼스에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전통적인 신학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신학교육으로 시도한 것이 TEE의 시작이었으며, 그것을 학습교재가 선생님이 되게 발전시켰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TEE의 학습교재를 통한 ‘배움’의 방법이 지역교회의 훈련에 가져다준 결과들에 대해 궁금했다.)

처음 말한 것처럼, 그간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단순히 충성, 순종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부터 교회가 바라는 지도자 상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봅니다.

TEE는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게 합니다. (세퍼드라이프의 경우) 주요 기본 텍스트는 마태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신학적, 교리적, 교회론 중심으로, 그리고 청지기 수준까지 훈련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과 리더가 의지만 있다면 계속 확장(익스텐션extension)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별, 성경 책별



로도 공부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주 포괄적인 리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 전체를 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핵심 리더가 된다는 것. 이것이 TEE의 혁신적인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공부가 잘못하면 책상 중심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이 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TEE는 바로 '자기 주도학습'입니다. 책에서 답을 주어 단순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노력에 따라 스스로 공부하는 만큼 자기 수준을 향상시켜나가는, 이것이 TEE의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기존 훈련들은 대부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화 공부'가 될

수 있는데, TEE는 '차별화 공부'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고, 깊이 터치하는 만큼 한량없이 넓어져서 신학적 수준이 높아지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장 중심입니다. 진짜 리더를 만드는 것이죠. 일반적인 훈련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훈련을 할 때는 좋은데 2-3년만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TEE는 종합신학적인 특성을 기본으로 단순히 교과서를 넘어 실천 중심의 신학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자기주도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갑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다음 단계로 계속 향상해 갈 수 있는 DNA를 그 속에 심어줍니다. 이것이 '연장(extension)교육'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에 TEE가 도입된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세계와 한국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한국교회 역시 이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으며, 중심 세대들도 바뀌었습니다. 20주년을 맞은 KTEE가 한국교회를 향해 어떤 준비를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TEE는 50년 전 선교지에서 필요 지향적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교회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TEE는 선교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바로 선교 현장인데 TEE는 공부가 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고 응용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적용을 뛰어넘어 응용신학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요리하면서 삶의 조리사가 되어가는 놀라운 효과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TEE의 본질이 곧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KTEE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TEE의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해나가면 그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앞에서 선교적 견지에서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선교로 접근이 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지역교회 목회를 요즘 말로 ‘선교적 교회’로 하셨다고 봅니다. KTEE 사역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35년 전에 지구촌교회를 개척할 때를 생각하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는 용어도 생소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교회 이름인 ‘지구촌’이라는 단어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오해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런 개념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교인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의 슬로건이 ‘사람들로 예수 믿고 변화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 성숙, 헌신...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의 그 ‘헌신’이 너무 ‘지역교회 중심적인 헌신’이 아니었나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는 헌신만 강조한 것입니다. 진짜 헌신은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주일 중 6일 동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TEE는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옥한음 목사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학교에서 4년간 제자훈련을 가르치실 때, 제가 옥목사님께 사랑 받고, 잘 배워서, 감사하게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때 이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목회 현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목회자를 위한 훈련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강점도 많지만 약점이라면 자기 교회에 국한된 일꾼을 만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교인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뿐 아니라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헌신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TEE는 그런 DNA를 심어줍니다.

는데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5년 신학교 훈련받은 이후 제자훈련을 성공하는 경우가 20%가 안되었습니다. 잘 안되거나,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도 있고, 자신의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제자훈련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난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자들이 제자훈련을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TEE는 본질 자체가 건강합니다. TEE는 공부하면 할수록, 강조하지 않아도 기본이 자연적으로 자기 신앙과



영성, 그리고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DNA가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 TEE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킹덤 멘탈리티(Kingdom Mentality)의 리더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면 TEE는 지도자 양성훈련이다. 이것이 TEE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교지에서 이 과정을 하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많이 TEE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TEE 모임을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들. 그게 아니라 한 목사님과 함께 틈나는 대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TEE 지도자 과정에서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은퇴의 소회나 계획을 나눠주십시오.

타 이야기를 새 걸로 바꾸니 좋습니다. (Re-tire) 저는 원래 선교적 인생을 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들, 특히 북한관련사역, 밀알선교단, 장애인 선교 등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잘 지나가면 틈나는 대로 선교지 가서 TEE와 함께 ‘지도자 세우는 일’, ‘킹덤 미션(Kingdom Mission)’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TEE 100주년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ㅎㅎ)

KTEE와 함께 ‘지도자 세우는 일’, ‘킹덤 미션(Kingdom Mission)’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TEE 100주년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중에 TEE를 하신 분들이 장로님들모임에서 TEE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로가 되려면 TEE를 해야 한다. 이 건 필수다.’ 이렇게 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큰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릇이 커야 합니다. TEE는 외골수적인, 자기중심적인 리더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킹덤 멘탈리티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 TEE를 하신 장로님들이 저에게 간곡히 제안하기를, ‘장로 투표 후보자가 되려면 TEE 훈련을 필수로 해야겠습니다’고 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TEE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단순히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라, 진정 큰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조봉희 목사님은 지난 해 12월
선교목사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열어갈 새 미래를 기도로 응원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발자취



2001 TEE 설명회



2006 지구촌교회 (서울)



2008 극동방송



2006 지구촌교회 (분당)



2017 선교현장 (인도)



2006 TEE 디모데 세미나



2010 미주



2006 인도자 클리닉



2011 선교 현장 (필리핀)



10주년 국제본부 총재 방문



2016 당진동일교회



2015 서교 사무실 감사



10주년 하와이 컨퍼런스



2016 설교세미나



2016 정기 세미나



'21 온라인 세미나



KTEE의 20번째 걸음

2022년 KTEE 사역계획

TEE 세미나

- 3월 24-25일 TEE 디모데 Webinar (준비중)
- 31일~1일 Webinar
- 4월 28-29일 Webinar
- 5월 26-27일 Webinar
- 6월 30 - 7월 1일 Webinar
- 8월 25-26일 지구촌교회 / 29-30 충청 지역
- 9월 26-27일 TEE 디모데 Webinar
- 29-30일 Webinar
- 10월 11일 **20주년 컨퍼런스 (예정)**
- 27-28일 지구촌교회
- 11월 21-22일 Webinar



▲ PDF의 경우 위 모니터를 클릭하면 세미나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미주 USA

- 5월 12-13일 Webinar
- 8월 18-19일 Webinar
- 10월 6-7일 Webinar



How to Preach 아카데미 (8주)

7월 4일 ~ 8월 22일 매주 월요일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세미나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